



석유를 매개로 아시아와 중동간 관계강화

박복영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bypark@kiep.go.kr, Tel; 3460-1149)

황주성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jshwang@kiep.go.kr, Tel; 3460-1116)

주요 내용

- 지난 6월 21~22일 싱가포르에서 제1차 '아시아·중동대화(AMED)'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에너지 측면에서 세계 최대 수입지역인 아시아와 최대 수출지역인 중동간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중국과 인도의 석유수요 급증 및 고유가로 중동의 對아시아 수출이 1997년 아시아위기 이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오일달러를 흡수하기 위한 아시아의 對중동 수출도 같은 기간 동안 2배 가량 증가하였음.
- 아시아국가들은 석유안보의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중동과의 관계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중동국가들은 對美 협상력 강화 및 석유의 안정적 판매처 확보를 위해 '동진정책(look east)'을 추구하고 있음.
 - 2030년 아시아의 중동 석유 의존도는 75%로 증가하고 중동 역시 전체 석유수출량의 70%를 아시아에 판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양 지역은 이러한 전망을 기초로 FTA와 정상외교 등을 통해 다각적인 관계강화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적극적임.
- 석유수입의 8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중동시장에서 강한 기업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도 에너지안보 강화와 시장확대를 위해 중동국가들과의 FTA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배경

- 지난 6월 21~22일 싱가포르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아시아와 중동간의 관계강화를 목적으로 한 제1차 ‘아시아·중동 대화(Asia-Middle East Dialogue: AMED)’가 개최되었음.
 - AMED는 고축통(吳作棟, 64) 싱가포르 전 총리가 이집트와 요르단 등 중동 방문 시 제안한 것으로, 정부인사와 민간전문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1.5트랙 성격의 포럼임.
 - AMED는 25개 아시아국가와 24개 중동국가(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포함)를 참가대상으로 했지만, 1차 회의에는 리비아, 시리아 등 9개국이 불참하고 40개국(21개 아시아국, 19개 중동국)에서 200여 명이 참가하였음.
- AMED와 같은 아시아와 중동간 관계강화 추세는 중국 등 아시아 신흥시장의 에너지수요 급증으로 아시아와 중동의 정치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 데 그 배경이 있음.
 -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신흥시장은 최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국가의 최고전략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어 중동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중동의 입장에서 아시아가 세계 석유소비 증가의 약 5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향후 에너지 판로 확보와 에너지 장기투자 계획 수립을 위해 아시아의 경제동향과 에너지전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다른 한편, 최근 5년간 약 1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오일달러가 중동에 유입되어 중동의 구매력이 증가하자, 아시아국가들은 중동 수출시장의 진출을 피하고 있음.¹⁾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 중동 산유국들은 최근 산업다각화 차원에서 석유화학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국에서 생산된 석유화학제품을 아시아시장으로 수출하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
 - 이집트와 요르단 등 중동 비산유국들은 최근 고도성장을 달성한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모델

1) 중동 오일달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중동 오일달러 규모와 그 파급효과」(오늘의 세계경제 05-1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를 참고.

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국내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아시아 자본의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아시아와 중동국가들은 양자간 차원이나 다자간 차원에서 관계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됨.
- 본 보고서는 무역, 투자, 에너지 부문에서 최근 아시아와 중동간 협력관계와 FTA 등 경제 통합 움직임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임.

2. 아시아와 중동간 통상관계

- 아시아와 중동(터키 포함) 경제가 세계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5%와 4% 수준이며,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와 4% 수준임 (표 1 참고).

표 1. 아시아와 중동의 전세계 대비 비중(2004년)

(단위: %)

	국가 수	경제규모	수출	인구
아시아	28	35.0	26.3	55.6
중동	14	2.8	3.8	4.1
중동(터키, 몰타 포함) (2002년 기준)	16	4.0	4.1	5.0

자료: IMF(2005), *World Economic Outlook*.

- 2000년 이후 아시아 개도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6~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동 역시 이라크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3~5%의 비교적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
- 중동과 아시아간 수출규모는 2003년 현재 1,338억 달러에 이르며, 양 지역간 무역에서 중동이 31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표 2 참고).
- 중동의 對아시아 수출규모는 826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인데, 이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의 중동 석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임.

※ 한·중·일의 중동석유의존도는 약 85%, 50%, 90% 수준임.

- 아시아의 對중동 수출규모는 512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에 불과하지만, 최근에는 3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아시아의 對중동 수출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최근 막대한 오일달러가 중동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인데, 중동 산유국들은 2000년 이후 증가된 오일달러의 약 40%를 해외수입 증가에 이용하고 있음.

표 2. 아시아와 중동간 수출규모 및 비중

(단위: 억 달러,%)

	1997~1999	2000	2001	2002	2003
아시아 ⇒ 중동	289	350 (2.8)	353 (3.0)	397 (3.1)	512 (3.3)
중동 ⇒ 아시아	455	738 (27.8)	683 (27.8)	674 (27.7)	826 (28.0)

주: () 안은 각 지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IMF(2004),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아시아지역의 對중동 수출을 국별로 살펴보면, 2003년 현재 중국과 일본이 28%와 2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의 수출이 연평균 3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의 對중동 수출은 2003년 144억 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2000년 이후 3년 만에 2배로 증가한 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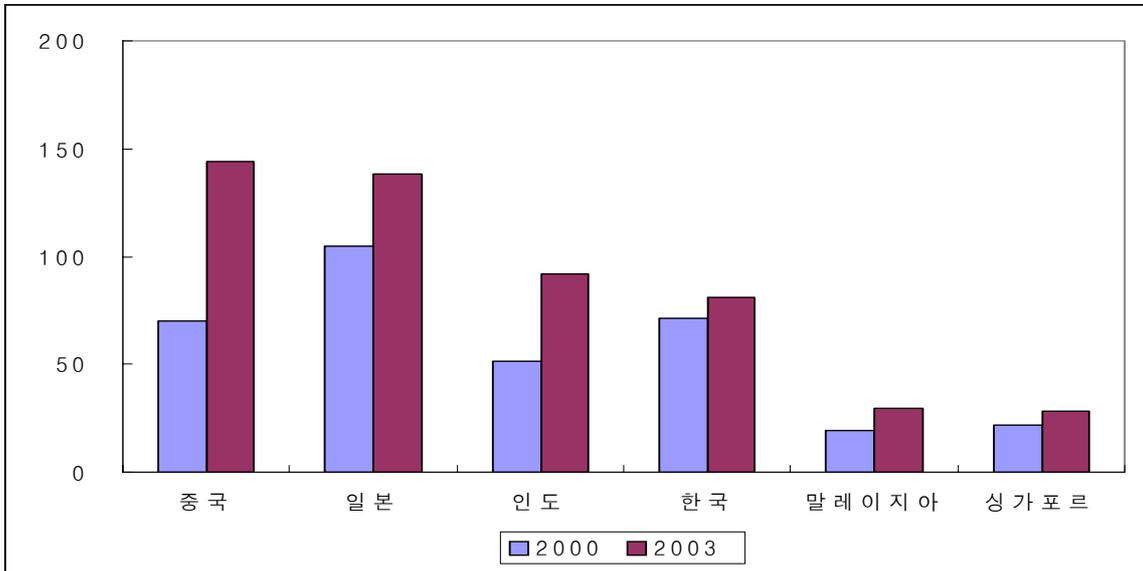
- 인도는 중국과 더불어 높은 對중동 수출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2003년에는 전년대비 76%나 증가한 92억 달러를 수출하여 한국을 제치고 3위의 수출국이 되었음.

■ 무역과는 달리 투자측면에서는 아시아와 중동간 경제관계는 매우 제한적임.

- 중동지역으로의 FDI 유입은 금액상으로는 증가되었으나 세계 FDI 유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표 5 참고).

그림 1. 아시아 국가별 대중동 수출액 추이(2000년, 2003년)

(단위: 억 달러)



자료: IMF(2004),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중동 산유국들은 일본, 한국,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정유 및 석유화학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아시아국가들은 중동의 석유 및 가스개발부문에 일부 투자하고 있는 정도임.
- 중동지역은 석유 및 가스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대부분 금지되어 있고 다른 부문에서도 외국인지분비율이 49%로 제한된 경우가 많아 외국기업의 투자여건이 불리함.

표 3. 중동지역으로의 FDI 유입 규모

(단위: 억 달러, %)

	1985	1990	1995	2000	2003
중동 유입액	372	478	631	850	1,035
세계 전체 규모	9,722	19,503	29,921	60,899	82,450
중동 비중	3.83	2.45	2.11	1.40	1.25

자료: UNCTAD(2004), *World Investment Report*.

- 아시아의 노동력도 중동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특히 걸프지역 산유국의 경우 비숙련노동의 대부분을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고 이 중 약 절반 정도가 아시아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특히 인도나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의 노동력이 지리적 근접성이나 종교적 동질성 때문에

걸프지역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노동자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음.

3. 아시아와 중동간 에너지 교역

- 2003년 현재 아시아는 세계 전체 석유의 29%(2,260만b/d)를 소비하고 있으며, 중동은 세계 전체 석유의 30%(2,261만b/d)를 생산하고 있음.
- 교역 측면에서 보면 중동은 세계 석유수출의 41%, 아시아는 세계 석유수입의 37%를 차지하고 있음.
- 아시아와 중동간 석유교역규모는 1,200만b/d인데, 아시아는 총수입량의 71%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중동은 총수출량의 63%를 아시아에 판매하고 있음.
- 따라서 아시아에 중동은 석유의 절대적 공급처이며 중동에 아시아는 절대적 판매처인데, 각 지역이 수급 측면에서 상대지역에 의존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10%p 가량 증가하였음.

표 4. 아시아와 중동의 주요 에너지 관련 지표(2003년 기준)

항목(단위)	중동	아시아
석유매장량(억 배럴)	7,266(63.3%)	477(4.2%)
천연가스 매장량(조 m ³)	71.7(40.8%)	13.5(7.7%)
석유 생산(만 b/d)	2,261(29.6%)	787(10.2%)
석유 소비(만 b/d)	448(5.9%)	2,260(28.8%)
석유 수출(만 b/d)	1,894(41.4%)	274(6.0%)
석유 수입(만 b/d)	35(0.8%)	1,685(36.8%)
對중동 수입(만 b/d)	-	1,200(63.4%)

주: () 안의 숫자는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BP(2004),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앞으로 석유공급 측면에서는 중동의 비중이 계속 증대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아시아 비중이 계속 증대하여, 2030년에는 아시아·중동간 석유교역량이 현재의 약 2배인 2,400만 b/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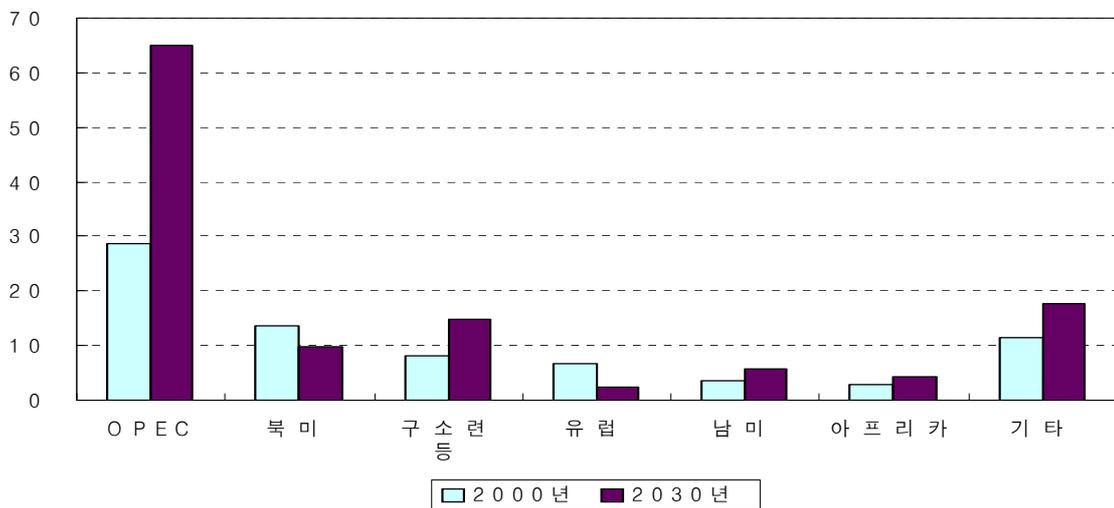
- 북해와 북미지역 유전이 빠르게 노후화되면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OPEC의 석유생산량 비중이 현재의 38%에서 2030년에는 5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세계에너지기구(IEA) 전망).
- 반면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석유소비증가율이 향후 20년 동안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 연간 4% 내외를 기록하면서 아시아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5년까지 중국과 인도의 수요증가가 세계 전체 증가분의 1/4을 차지할 전망이다.

- 이러한 결과 2030년에 아시아가 세계 전체 석유수입의 45%를 차지하고 중동의존도는 현재의 71%에서 7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중동은 현재 수출량의 63%를 아시아에 판매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전체 수출량의 약 70%를 아시아에 판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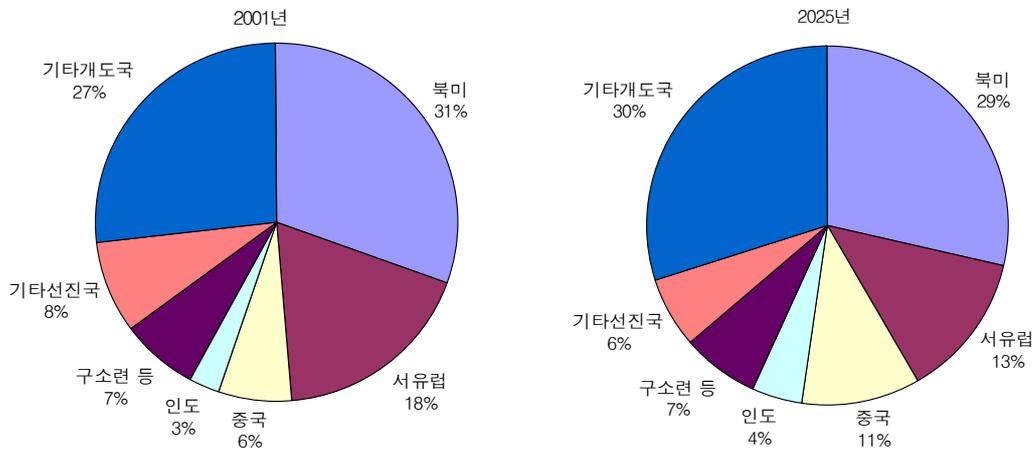
그림 2. 지역별 원유생산 전망(2000~2030년)

(단위: 백만/d)



자료: IEA(2002), *World Energy Outlook*.

그림 3. 석유수요의 지역별 비중 변화(2001~25년)



자료: EIA(2004),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 따라서 아시아는 에너지 조달 측면에서 중동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중동은 에너지 판매 측면에서 아시아에 더욱 의존하게 되어 양 지역은 에너지를 매개로 더욱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중국과 인도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동과의 정치외교적 관계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동의 석유개발 참여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음.
- 특히 중국, 일본, 인도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의 중동지역에서 유전개발사업 참여를 강하게 기대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투자개방 움직임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중동 산유국들은 최근 고유가와 공급부족에 대응하여 유전개발투자의 확대를 원하지만, 미래 석유수요와 국제유가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데 아시아가 이 변수들의 핵심적 결정요인이라고 생각함.

4. 아시아와 중동간 경제통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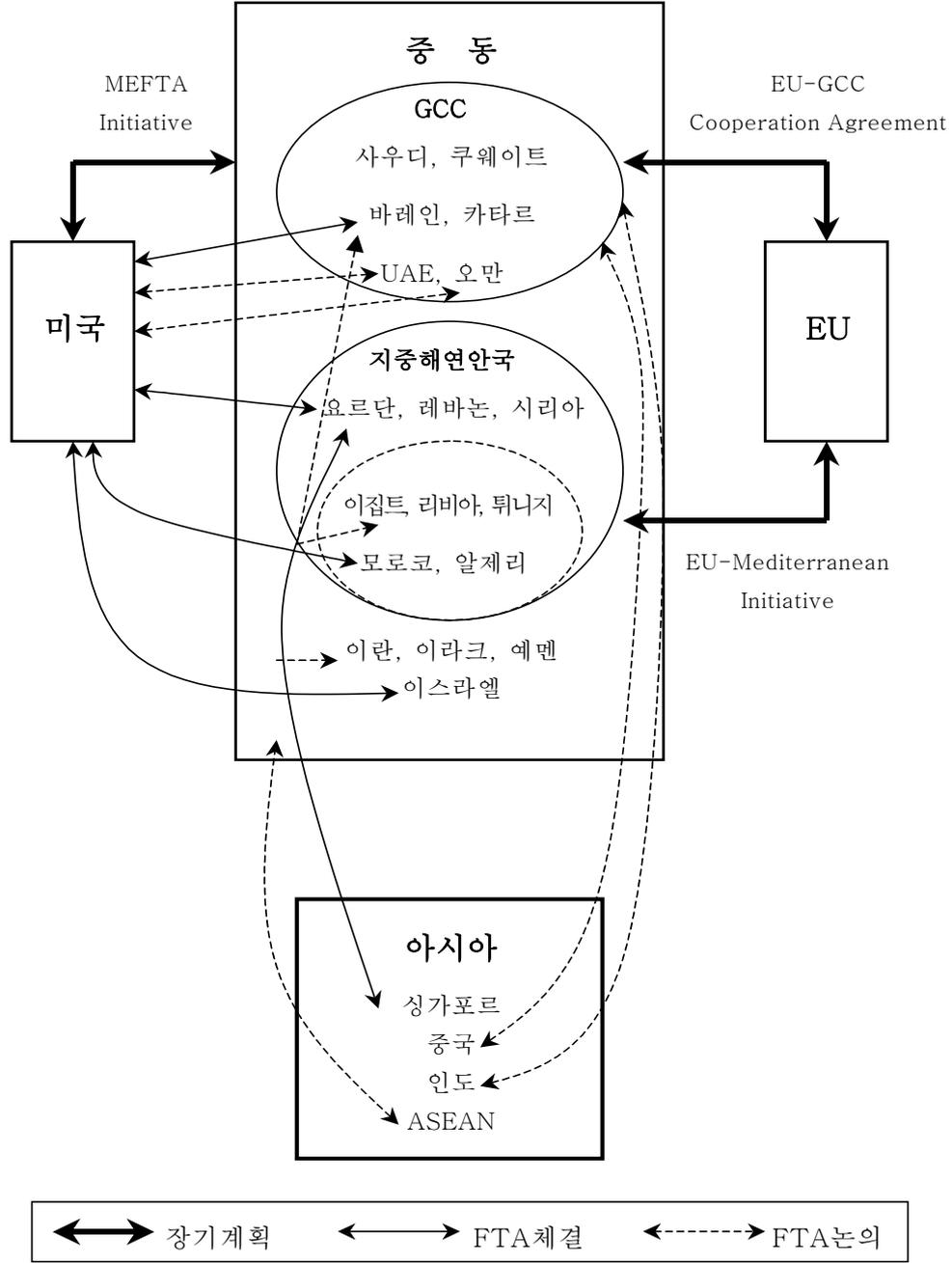
- 세계적인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은 중동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닌데, 역내 경제통합은 걸프 지역 국가간 통합과 지중해연안국가간 통합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음.
 - 걸프지역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바레인, 오만)은 1981년에 GCC를 결성하여 1983년부터 FTA 단계의 경제통합을 이루었으며, 2005년에는 역외관세를 단일화 하는 관세동맹으로 발전하였음.
 - GCC는 2010년까지 단일통화를 도입하고 최종적으로는 EU와 같은 경제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경제적 동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현 여부는 불투명함.
- 세계 각 지역 중 유럽이 중동과의 경제통합 추진을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지리적 인접성뿐만 아니라 과거 식민지경험이라는 역사적 유산도 그 배경으로 작용하였음.
 - EU의 중동지역과의 경제통합 노력은 197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지중해연안국가와 GCC국가의 두 갈래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EU는 EU·지중해 이니셔티브(EU-Mediterranean Initiative)에 따라 2010년까지 양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든다는 계획인데, 현재 지중해연안 8개국과 중간단계인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음.
 - GCC지역과는 1988년에 체결한 기본협력협정(Cooperation Agreement)에 따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단되었던 협상을 2002년부터 재개하여 2004년 공동연구결과를 발표하였음.
- 미국은 이라크전쟁 이후 對중동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까지 중동 국가들과 FTA 체결을 목표로 하는 중동FTA이니셔티브(Middle East Free Trade Agreement: MEFTA initiative)를 추진 중임.²⁾

2) 미국의 對중동 FTA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의 대중동 FTA 수립 제안의 배경과 시사점」(오늘의 세계경제 03-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참고.

- 미국의 對중동지역 FTA 체결은 대부분 경제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요르단과는 이라크전쟁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음.
 - MEFTA 이니셔티브 발표 이후 미·모로코 FTA가 2004년 6월에 체결되었으며, 9월에는 걸프국가 중 처음으로 바레인과의 FTA가 체결되었음.
 - 한편 2004년 초에는 걸프국가인 쿠웨이트, 오만, UAE 등과 무역투자기본협정(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고 현재 FTA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임.
- 아시아와 중동간의 경제통합 움직임은 다른 지역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지만, 최근 싱가포르, 중국, 인도 등 아시아국가를 중심으로 중동국가들과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아시아국가 중 중동과의 FTA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싱가포르인데, 요르단과 FTA를 체결하였고 바레인과 쿠웨이트와는 협상을 거의 마쳤으며, 카타르, 이집트, 이란 등과는 FTA 추진을 논의 중임.
 - 중국은 2004년 7월 GCC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중국은 이를 통해 정치외교관계 강화, 에너지안보 강화, 중동시장 진출을, GCC국가는 석유화학제품의 對中 수출확대를 기대하고 있음.³⁾
 - 인도 역시 GCC국가와의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對중동 수출비중이 높고 자국 노동자의 중동 진출이 활발하여 아시아국가 중 중동과의 경제관계가 가장 긴밀함.
- 유럽은 역사적, 지리적 근접성을 배경으로 중동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최근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동 진출을 피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시장과 에너지 확보를 위해 관계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중동지역의 행정의 불투명성, 높은 무역장벽,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WTO 미가입, 지정학적 불안요인 등으로 인해 역외지역과의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얼마나 신속히 진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함.

3) 중국과 GCC간의 FTA 추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국, 석유확보 위해 중동진출 본격화」(오늘의 세계경제 04-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를 참고.

그림 4. 중동을 둘러싼 지역경제통합 동향(2004년 말 현재)



자료: 필자 작성.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동은 세계 모든 지역에 地經學的(geo-economical)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임.
 -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급속한 공업화와 더불어 석유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석유생산과 수출은 점점 중동에 집중되는 경향이 불가피함.
 - 그 결과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와 고유가가 지속되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려는 미국, 중국, EU 등 강대국들은 중동과의 정치경제적 관계강화를 피할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 역시 무역, 에너지교역,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중동과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고유가가 계속되면 오일달러가 중동으로 유입되는데, 수출확대를 통해 이 오일달러를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은 아시아가 될 것임.
 - 중동은 석유의 공급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석유 생산과 수출을 확대할 것인데, 이것을 가장 많이 흡수할 지역 역시 아시아가 될 것임.
 - 즉 중동의 對아시아 석유수출 확대와 아시아의 對중동 상품수출 확대라는 오일달러의 리사이클링(recycling) 과정에서 아시아와 중동간 상품 및 에너지 교역이 나선형으로 확대될 것임.
 - 현재 미국은 對테러전쟁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해 중동으로의 진출을 피하고 있지만, 중동의 왕정 및 권위주의 정치체제 국가들은 미국의 민주주의 확대요구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음.
 - 중동국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 인도, 러시아 등과의 정치군사적 관계강화를 위한 '동진정책' 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아시아와 중동간 관계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간 협력의 축은 AMED와 같은 다자간협의체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협력체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대한 지역내 국가간 입장차이, 국가간 경제적 격차, 공통의 협력의 제 발굴의 곤란함, 다자협력의 주도국 부재 등으로 인해 다자간협의체가 실질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임.
- ※ 아시아와 중동간 다자간협의체로는 AMED 외에 2002년 태국의 주도로 구성된 외무장관급 회담인 ACD(Asia Cooperation Dialogue)가 있지만, 이것 역시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국가들은 중동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정상외교는 물론 양자간 FTA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WTO에 가입하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동과의 정상외교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석유의 중동의존도가 80%를 상회하고, 아시아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음.
- 오일달러 덕분에 최근 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 인도, 말레시아와 비교하면 증가율이 낮은 수준임.
- 따라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동 산유국과의 관계강화라는 전략적 목적과 수출확대라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중동국가와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걸프지역 중에서는 지역허브인 UAE, 지중해연안국 중에서는 요르단, 북아프리카지역 중에서는 이집트가 FTA 우선추진대상국이 될 수 있으며, 아랍국가와의 체결이 가시화되면 이스라엘과도 추진할 수 있음.